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	--	------	--	--	--	---	--	--	--	----------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친애하는 ○○에게
 자네가 지난번에 질문한 성인(聖人)이 되는 길에 대해 답하고자 하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을 따르지만 한다면 선을 실현할 수 있다네. 사람이 선하고 악한 것은 타고난 본성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을 보존했는지 잃어버렸는지에 달려 있다네. 풍년에는 젊은이들이 선을 행하고, 흉년에는 포악해지는 일이 있으나 이는 하늘이 내린 바탕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 그렇게 되는 것이라네. 그러므로 학문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 [求放心]임을 반드시 명심하게.

- ① 모든 사회 규범을 거부하고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 ② 성현이 제정한 예(禮)를 배우고 익혀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 ③ 도덕적 기개를 기르기 위해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 ④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친소의 구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
- ⑤ 연기(緣起)의 법을 깨달아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2. 근대 한국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동양의 도(道)로써 서양의 기(器)를 행한다면 지구의 오대주는 평정하지 못할 것도 없다. 그런데 동양의 도가 이름만 있고 쓰러질 형편이니, 우리의 도를 제대로 행할 수 있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도 손바닥 뒤집듯 쉬울 것이다.
 을: 수심정기(守心正氣)는 천지를 내 마음에 가까이하는 것이니, 참된 마음은 한울님이 반드시 좋아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도는 다만 성(誠)·경(敬)·신(信) 세 글자에 있으니, 이에 능하면 성인(聖人)이 되는 것도 손바닥 뒤집듯 쉬울 것이다.

<보 기>
 가. 갑: 백성의 후생(厚生)을 위해 서양의 종교를 수용해야 한다.
 나. 을: 천지 만물이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다. 을: 내세에 도래할 만민 평등의 후천(後天)을 준비해야 한다.
 라. 갑과 을: 도의 실현을 위해 효제(孝悌)의 덕을 실천해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3.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쾌락은 가장 으뜸가는 선이자 선천적으로 주어진 선이다. 모든 쾌락은 본성적으로 우리와 잘 맞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만 모든 쾌락이 선택할 만한 것은 아니고, 모든 고통은 나쁘지만 모든 고통이 항상 회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을: 쾌락과 고통은 그 자체로 유익한 일도 아니고 해로운 일도 아니다. 어떤 외적인 일로 내가 고통을 받는다면,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 외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네 자신의 판단 때문이다.

- ① 갑: 모든 자연적 욕구는 쾌락을 위해 충족될 필요가 있다.
- ② 갑: 참된 쾌락의 추구를 위해 이성적 숙고는 필요하지 않다.
- ③ 을: 우주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
- ④ 을: 외적인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서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 ⑤ 갑과 을: 적극적 정치 참여를 통해 고통과 불안을 제거할 수 있다.

4. 다음을 주장한 한국 유교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하늘이 부여한 본성은 기호(嗜好)로 말할 수 있다. 사람의 잉태함이 이미 이루어지면 하늘이 영명(靈明)하고 형상이 없는 실체[體]를 부여한다. 그 실체라는 것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며 덕을 좋아하고 욕됨을 부끄러워하니, 이를 성(性)이라 하고 그러기에 이를 성선(性善)이라 말한다.

- ① 영지의 기호는 악으로 흐르기 쉽지만 선도 악도 아니다.
- ② 사단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자주지권을 형성할 수 있다.
- ③ 성선의 근거인 사단은 사덕이 마음 밖으로 드러난 단서이다.
- ④ 인간과 동물은 선천적으로 덕을 좋아하고 악을 부끄러워한다.
- ⑤ 하늘이 명한 본성의 실현을 위해 모든 욕구가 제거될 필요는 없다.

5.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동굴에 사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라. 그들은 동굴 벽만 보고 머리도 돌릴 수 없어 자신들이 보는 그림자가 진짜라고 믿지 않겠는가? 하지만 누군가 동굴 밖으로 나가 진짜 사물과 태양을 본다면 이전의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을: 피리 부는 사람과 같은 기술자의 좋음은 그의 기능 안에 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좋음은 인간의 기능 안에 있다. 인간의 기능은 이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므로, 인간의 최고선은 가장 완전한 탁월함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 ① 갑: 모든 이데아의 존재 근거가 되는 것은 좋음의 이데아이다.
- ② 갑: 현상계에 있는 좋음 자체를 인식해야 통치자가 될 수 있다.
- ③ 을: 인간의 행위는 목적을 지니며 그 목적 간에는 위계가 있다.
- ④ 을: 품성적 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지혜가 필요하다.
- ⑤ 갑과 을: 행복한 삶은 감정과 욕구를 이성으로 조절해야 가능하다.

6. 다음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찬바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춥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춥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가 지각한 것은 모두 진리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은 만물의 척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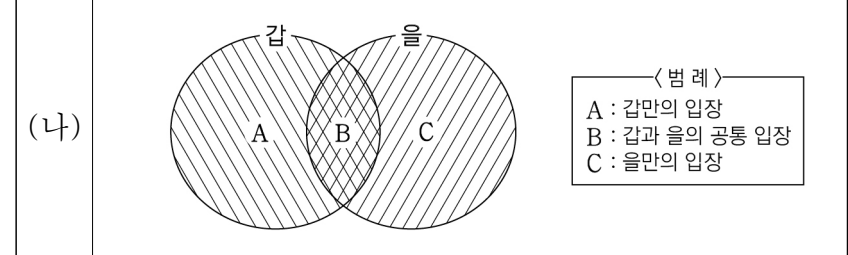
을: 만일 각자가 지각한 바를 참이라고 한다면, 나의 판단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반대자의 판단 또한 참이 됩니다. 따라서 지식은 결코 지각과 같은 것이 아니며, 영혼이 이성을 통해 파악하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 ① 갑: 감각적인 지각이 없어도 객관적 진위 판별이 가능하다.
- ② 갑: 사실 판단과 달리 도덕 판단에는 보편적 척도가 존재한다.
- ③ 을: 부도덕한 모든 행위는 참된 지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④ 을: 덕을 발휘하는 것만으로는 행복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 ⑤ 갑과 을: 사회적 성공에 유익한 지식이 영혼을 이롭게 하는 삶이다.

7. (가)의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성(性)이 곧 이(理)이다. 마음에서는 성이라 부르고, 일[事]에서는 이라고 부른다. 성은 하늘이 생성한 수많은 도리이며, 오로지 선하다. 부자(父子) 사이에는 부자의 이가 있고, 군신 사이에는 군신의 이가 있다.
 을: 마음이 곧 이(理)이다. 이 마음이 사욕에 가려지지 않는 것이 천리이니, 마음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탬 필요가 없다. 이를 순수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데 드러낸 것이 효이고, 임금을 섬기는 데 드러낸 것이 충이다.



<보기>
 ㄱ. A: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ㄴ. B: 하늘의 이치를 보존하기 위해 격물(格物)에 힘써야 한다.
 ㄷ. B: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여 삶을 극진히 해야 한다.
 ㄹ. C: 양지를 사물에 실현하면 사물이 그 이치를 얻게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정신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이 신적 본성의 필연성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며, 불쾌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사물 자체를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데에서 생긴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 그러므로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며, 참다운 인식의 장애들, 즉 미움, 분노, 질투, 조롱, 오만 등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보기>
 ㄱ. 신은 인과 법칙에서 벗어나 자연에 고유한 목적을 부여한다.
 ㄴ. 인간은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대상을 선이라고 판단한다.
 ㄷ. 인간의 의지를 작용하도록 결정하는 필연적 원인이 존재한다.
 ㄹ. 사물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은 인식의 결함에서 기인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사람들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이것을 따르기 때문에 쟁탈이 생기고 사양함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융성한 예를 세워서 법도로 삼는다면 천하의 그 누구도 그것에 더하거나 덜지 못한다.
 을: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윗사람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백성이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윗사람이 삶을 두텁게 구하기 때문이다. 무릇 삶을 억지로 꾸려나 가려 하지 않는 자가 삶을 귀히 여기는 자보다 더 현명하다.

- ① 갑: 도덕보다 법률과 형벌을 다스림의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 ② 갑: 군주는 예를 토대로 백성의 무분별한 욕망을 조절해야 한다.
- ③ 을: 현명한 자를 숭상하여 백성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 ④ 을: 군주는 백성의 무욕한 삶을 위해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사회적 혼란 극복을 위해 타고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10. 근대 사회사상가 갑, 현대 사회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입법권은 인민 이외의 누구에게도 속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의 힘은, 그 힘을 결집해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 작동시키고 국가와 주권자를 연결시키는 어떤 대리인을 필요로 한다. 이것이 국가에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을: 모든 인민이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하게 결정된 공공의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민의 역할은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뿐이며, 민주주의적 방법 안에서 개인들은 인민의 투표를 획득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쟁함으로써 결정권을 획득한다.

- ① 갑: 일반 의지에 대한 복종을 통해 시민적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
- ② 갑: 주권은 양도될 수 없지만 정부에 의해서는 대표될 수 있다.
- ③ 을: 정치인들은 개인적 이익이 아닌 공동선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④ 을: 시민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비합리적 충동에 빠지지 않는다.
- ⑤ 갑과 을: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역할이다.

11. 한국 불교 사상가 갑, 중국 불교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도(道)에 들어가는 문은 많으나, 결국 돈오(頓悟)와 점수(漸修) 두 문에 불과하다. 돈오돈수(頓悟頓修)가 최상 근기(根機)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먼저 깨닫고 뒤에 닦은 것이다.
 을: 불법(佛法)에는 돈점(頓漸)이 없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로 들어맞고, 깨달은 사람은 단박에 닦는 것이다. 자신의 본심을 알아 깨닫는다면 바로 차별이 없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기나긴 겁(劫)에 윤회한다.

- ① 갑: 습기(習氣)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성을 자각할 수 없다.
- ② 갑: 단박에 깨달은 후에도 정혜(定慧)를 닦는 수행이 필요하다.
- ③ 을: 자성(自性)이 곧 불성임을 깨달으면 단박에 부처가 된다.
- ④ 을: 문자에 의존하지 않아도 부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다.
- ⑤ 갑과 을: 무명(無明)에 빠진 중생도 본래 청정한 마음을 지닌다.

12.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도덕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어떤 감정을 내포한다. 이 감정은 모든 혹은 대다수 사람이 같은 대상을 일반적으로 시인하도록 만든다. 도덕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확립된 옳음의 규칙에 일치하느냐 불일치하느냐에 따라 칭찬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감정을 내포한다.

<보 기>

- ㄱ. 이성(理性)은 행복을 얻거나 불행(不幸)을 피하는 수단을 제시한다.
- ㄴ. 덕(德)과 부덕(不德)은 행위 그 자체에 내재해 있는 객관적 속성이다.
- ㄷ. 인간의 모든 쾌락(快樂)은 도덕적(道德的) 시인(詩人)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 ㄹ.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정념(情念)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중세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두 사랑이 두 세계를 이루었다. 신을 멸시함에까지 이르는 자기 사랑이 지상의 나라를 만들었고, 자신을 멸시하면서까지 신을 사랑하는 사랑이 천상의 나라를 만들었다. 지상의 나라는 자신을 자랑하며 천상의 나라는 신을 자랑한다.
 을: 실천(實踐) 이성에 있어 제1 원리는 선(善)이라는 개념 위에 기초(基礎) 지어진다. 따라서 자연법(自然法)의 첫 번째 계명(戒命)은 “선은 행해야 하는 것이고, 악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이다. 그리고 이것 위에 자연법(自然法)의 다른 계명(戒命)들이 기초(基礎) 지어진다.

- ① 갑: 신이 창조한 선악은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 드러난다.
- ② 갑: 자신과 신을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질서 잡힌 사랑이다.
- ③ 을: 인간 이성에 의해 파악되는 자연법은 실정법(實定法)의 기준이 된다.
- ④ 을: 신이 정한 질서를 이해하는 것은 자연법(自然法)의 인식과 무관하다.
- ⑤ 갑과 을: 자연적 덕(德)의 성취(成취)만으로도 완전한 행복(幸福)에 이를 수 있다.

14. 그림의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시민들이 자기 공화국과 법을 사랑하게 하려면 공화국과 법은 강자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적 애국은 공동체의 자치 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에 의해서도 진작될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고 직접 선출한 대표들을 감시하는 시민들은 공공선에 대해 마치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느끼는 것과 같은 애착을 갖게 됩니다. 물론 공화국의 제도들은 공적인 것이어서 어느 개인이나 집단에 독점적으로 속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들이 사적으로 운영되면 우리는 이 공화국이 더 이상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 ① 애국심은 공적 삶에 대한 참여 없이도 길러지는 자연적 감정이다.
- ② 능력 있는 개인에 의한 권력의 독점은 공화국의 자유를 증진한다.
- ③ 법의 지배는 타인의 자의적 의지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없다.
- ④ 공공선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공화국의 사적 운영을 막을 수 있다.
- ⑤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양할 수 있다.

15. (가)의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자연 상태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하는 것은 각자의 인신,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p> <p>을: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p>
(나)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A</p> <p>예</p> <p>아니요</p> <p>B</p> <p>예</p> <p>갑의 입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C</p> <p>예</p> <p>을의 입장</p> </div> </div> <p style="text-align: right;"><범례> 출발 조건 판단 내용 판단 방향 사상가의 입장</p>

<보 기>

- ㄱ. A: 사회 계약의 목적 실현을 위해 국가 권력의 분립이 필요한가?
- ㄴ. B: 입법권은 시민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가?
- ㄷ. B: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의 집행권은 만인의 수중에 있는가?
- ㄹ. C: 사회 계약을 통해 자연 상태의 부정의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6.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 의지의 법칙에 대한 자유로운 복종의 의식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이다. 경향성을 배제하고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위를 의무라고 하며, 이 배제로 인해 의무는 실천적 강요를 함유한다.
○ ‘이성적 존재가 너의 준칙에서 동시에 목적 그 자체로서 타당하도록 행위하라’는 원칙과 ‘각 이성적 존재에 대한 보편적 타당성을 동시에 갖는 준칙에 따라 행위하라’는 원칙은 한가지이다.

- ① 보편적 도덕 법칙을 원리로 삼는 의지도 선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가 언제나 자율에 의한 행위인 것은 아니다.
- ③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준칙이 보편화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④ 의지를 지닌 완전한 존재에게도 도덕 법칙은 명령의 형식을 갖는다.
- ⑤ 경향성에 의해 규정된 의지는 어떠한 도덕 법칙도 수립할 수 없다.

17.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옛날의 진인(眞人)은 적다고 해서 거절하지 않으며, 공(功)을 이루어도 뽐내지 아니하며, 인위적으로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 그 같은 사람은 실패하여도 후회하지 아니하며, 일이 합당하게 이루어져도 우쭐거리지 않는다. 그 같은 사람은 높은 데 올라가도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불에 들어가도 뜨거워하지 않았다.

— <보 기> —
 ㄱ. 도의 관점에서 만물의 귀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가?
 ㄴ. 자신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삶이 도와 일치하는 삶인가?
 ㄷ. 공적과 명성을 추구하는 태도는 도의 체득을 방해하는가?
 ㄹ. 진인이 되기 위해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수양을 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8. 현대 서양 사상가 갑,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나쁜 사람은 지금까지는 선행을지라도 타락하고 있는 사람이며, 선한 사람은 지금까지는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는지라도 선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즉 정적인 성과와 결과보다는 성장과 개선의 과정이 중요하다.
 을: 쾌락의 양과 질을 똑같이 잘 알고 평가하고 즐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더 높은 기능을 필요로 하는 존재 방식을 뚜렷하게 선호할 것이다. 짐승의 쾌락을 위해 인간 이하의 하급 동물이 되고자 하는 데 동의할 사람은 없다.

- ① 갑: 인간이 추구하는 도덕적 선은 고정된 실재로서 존재한다.
- ② 갑: 지식은 문제 상황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이다.
- ③ 을: 타인을 위한 자기희생은 그 자체로는 도덕적 선이 아니다.
- ④ 을: 질적으로 높은 쾌락의 성취 과정에서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
- ⑤ 갑과 을: 도덕 판단은 행위가 산출하는 결과의 유용성에 근거한다.

19. (가)의 한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사람의 몸은 이(理)와 기(氣)가 합쳐져 생겨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서로 발(發)하여 작용하게 되고, 그 발하는 것 또한 서로를 필요로 한다. 을: 사람의 마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의 변화 또한 기가 변화하는 데 이가 타지[乘]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음양이 동정하는 데 태극이 타는 것이다.
(나)	

- ① A: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칠정에 포함된 감정이 아님을 간과한다.
- ② A: 사단은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지 않는 도덕 감정임을 간과한다.
- ③ B: 희노(喜怒哀)의 감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올라탄 것임을 간과한다.
- ④ B: 칠정은 악할 수 있으므로 이가 타지 않은 감정임을 간과한다.
- ⑤ B: 성(性)이 발하여 절도에 맞는 정(情)은 선한 것임을 간과한다.

20. 다음을 주장한 사회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체로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촉진할 것을 의도하고 있지도 않으며, 그가 공공의 이익을 얼마나 촉진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지도 않다. 그는 자기 자신의 안전만을 의도하며 생산물이 최대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의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그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촉진하게 된다.

— <보 기> —
 ㄱ. 국가 개입의 최소화는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촉진한다.
 ㄴ. 국가의 이익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를 통해서만 증대된다.
 ㄷ. 국부는 개인의 자비심보다 자기애를 통해 효과적으로 증진된다.
 ㄹ.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계획적인 자본 운용은 국부를 극대화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